

문화광장



김정호  
경희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

### 나는 옛날 영화를 본다(인터넷서 옛날 영화 보기)

지난 봄 한창 코로나가 전세계를 멈춰 세웠을 때, 유튜브의 'the Shows Must Go On!' 을 통해 캐머런 매킨토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뮤지컬 25주년 라이브 공연 동영상 상이 무료로 공개된 적이 있다. 구글 크롬캐스트나 애플 TV, 핸드폰 영상 미리보기, 혹은 스마트 TV를 통한 유튜브 직접 연결로 집안 조명을 끄고 대형 화면에서 본다면 세계적 공연이 내 방안으로 들어오는 경험을, 추석의 나훈아 콘서트와 같은 감흥을 즐길 수 있다. 간간히 무료로 유명한 작품들이 공개되니 구독과 알

림을 설정해주는 것이 좋다. 언택트의 시대라 하더라도 극장이 없어질 것 같진 않다.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에도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면,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라서 서로 사람 구경을 하고 다른 사람의 취향을 확인하는 극장이라는 공간은 축소되기는 하더라도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본 칼럼을 통해 영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영화들을 보기가 쉽지 않다면 글의 효용 가치는 반감될 것이다. 유튜브라는 플랫폼은 한국영화를 무료로 보기에 좋은 플랫폼이다. 지난번 칼럼에서 언급했던 임권택 감독의 '축제'는 한국 고전 영화 채널(<https://www.youtube.com/user/KoreanFilm>)에서 볼 수 있다. 이 채널은 우리나라 영화 등 영상자료의 복원과 보존을 담당하는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제공하는 한국 고전 영화 채널로 1940년대부터 1990년대 까지의 주요 한국영화를 고화질로 제

공한다. 네이버(<https://tv.naver.com/koreanfilm>)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이버 시리즈 온(<https://serieson.naver.com/movie/freeMovieList.nhn>)에서는 매주 금요일 최근의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다. 추억 닷컴이라는 채널에서도 한국영화를 관람 가능하다. 무비콘 영화에서는 한글자막이 달린 미국 고전 영화들을 볼 수 있다. 대한 뉴스가 보고 싶은가? KTV 대한뉴스 채널에서 볼 수 있다. KTV는 예전 국립영화제작소가 개편된 조직으로 우리나라의 사진 및 동영상 기록물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이 홈페이지에서도 다양한 옛날 우리나라 관련 동영상을 볼 수 있다. 옛날 외국 영화를 무료로 보려면, public domain이나, copyright free에 film, movie, cinema 등의 검색어를 조합하면 된다. 이전의 칼럼에서 언급했던 좀비 영화들도 제목을 검색하면 볼 수 있다. 어떤 경

우는 영어 자막만 나오는 예도 있는데 그 경우 설정에서 한글로 자동번역을 선택하면 아쉬운 대로 볼 수 있다. 저작권자의 사후 70년이 지나면 예술작품도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서서 대중이 누릴 수 있는데, (<https://publicdomainmovie.net/>)이나, 인터넷 아카이브인 (<https://archive.org>)에서 그 영화들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제영상자료연맹에서는 세계각국의 온라인 영상자료원 영화들(<https://www.fiafnet.org/pages/E-Resources/Film-AV-Collections-Online.html>)을 만날 수 있다. 한때, 지식과 정보가 권력이던 시절이 있었다. 영화를 책으로만 배우거나, 영화 비디오테이프 하나 빌리기 위해서 애쓰던 시절은 가고, 인터넷이 책과 영상이 디지털로 보존되고 제공되고 있다.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문화적 격차와 소외라는 말은 무의미해질 것이다.

열린마당

### 학교 급식 현장에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김미성  
새서귀초등학교

제주도교육청은 강경정수장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됨에 따라 학교 먹는 물 등 수돗물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강경정수장 유충 관련 학교는 서귀포초 등 초등학교 9개교, 서귀포중 등 중학교 4개교, 서귀포여고가 해당된다. 해당 학교에서는 수돗물 음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먹는 물 및 급식용수는 제주도에서 제공하는 시판 생수를 이용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유충 발견 시 사용 중지 및 즉시 교육청에 보고하고 육내 급수관, 저저조 수질검사 및 청소·소독 등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학교급식 위생관리 차원에서는 조리용수 이용 식재료 최종 세척

시 확인을 철저히 하고, 수돗물 유충의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가열 조리한 식단으로 제공하기로 했으며 생채소, 생과일 제공에 유의하고 필요 시 식단을 변경해 제공하고 있다. 현장에서 직접 이러한 상황을 직접 마주하게 된 조리사 등 학교급식 관계자들은 갑작스러운 수돗물 사용 금지로 인해 급식 준비, 조리 과정에서 페트병에 들어 있는 2ℓ 생수를 이용해 세척, 조리를 할 수 밖에 없게 됐다. 더불어 빈 페트병 처리 등 평소보다 작업 동선이 더해졌지만 정해진 급식 시간에 맞춰야 하기에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겪고 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상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느낄 정도로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숨은 고마운 분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급식에서 친환경 바른 먹거리를 접하며 맛있는 급식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 묵묵히 본연의 자리에서 견디고 있는 학교급식 관계자들의 노고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야 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 '송악선언'은 원 지사 대권도전 의식?

“정치적 해석할 필요 없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최근 '정경제주 송악선언' 등 대규모 난개발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대권 도전을 위한 정치적 행보가 아니냐는 비판에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다”고 단언.

원 지사는 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악선언' 실천조치 1호로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해 관련 토지 등을 매입하고 청정제주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천명. 대권도전을 의식한 정치 행보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임기 막판으로 가기 전 지지부진한 현안을 정리한다는 것"이라고 강조. 이때문기자

### 롯데관광개발 도서바우처

○...롯데관광개발이 도내 초등학교 담임교사들에게 10만원의 도서 바우처를 지급해 눈길. 롯데관광개발은 지난날 말 제주 도서관 친구들을 통해 써왔고 캠페인에 참여하는 도내 초등학교

450개 학급의 담임교사들에게 10만원의 도서 바우처 지급을 완료하고 향후 3년간 제주 전체초등학교는 물론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위해 총 3만권의 도서를 기증할 계획. 롯데관광개발 관계자는 "교사들이 도서를 구입해 학생들과 공유하게 된다"고 언급. 고대로그기자

### '마을복지가양성과정' 성료

○...서귀포시가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달 6~30일 사이 12개 읍·면·동에서 진행된 마을복지가양성과정이 성황리에 종료.

읍·면·동 특성에 맞는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기존 회의·워크숍과는 달리 전문강사의 도움 아래 마을주민이 지역의 과제를 확인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주민참여 교육으로 진행. 서귀포시는 교육을 통해 도출된 읍·면·동별 주요 복지문제 해결책은 내년도 읍·면·동별 마을복지계획 수립에 활용할 방침. 현명종기자

사설

### 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장기표류 안된다

평화의 섬 제주에 가장 평화의 상징으로 꼽히는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이 장기 표류중입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이 사업이 10여년간 지지부진하면서 정부와 제주도 모두 책임공방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평화대공원 사업은 이제 '네 탓 내 탓'에서 벗어나 새로운 돌파구 마련에 지역사회 모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책임의식보다 남의 탓으로만 돌리는 회피풍조로는 해법찾기가 요원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평화대공원은 대정읍 상모·하모리 옛 알뜨르비행장 부지 184만여㎡ 부지에 749억원을 들여 격납고 19곳과 동굴진지 2곳 등 전적지를 복원하고, 전시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한 마디로 평화를 주제로 한 역사문화공원을 만들어 세계평화의 섬을 상징하는 관광명소로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와 제주도가 추진해 온 이 사업은 제주특별법에 국유재산 무상양여 특례제도 마련에도 불구하고

하고 국방부의 공군비행장 대체부지 없이 알뜨르비행장 부지 제공을 할 수 없다는 입장 고수로 2007년 이후 13년째 장기 표류 중입니다. 도가 차선으로 국방부에서 꼭 필요한 구역을 제외해 일제 강점기 등록문화재 지역 51㎡만을 우선 무상양여나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국방부 불응에 '유보사업'으로 분류돼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강민숙 도의원이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에 손을 놓고 있다고 도정을 질타하면서 다시 지역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원희룡지사는 '송악산 선언' 당시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청와대와 협의 중인데 '진진'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이 책임공방으로 흐르는 건 지양해야 합니다. 제주도정이 사업진전에 대한 더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하고, 도민사회도 정부 대상으로 한 협의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 오름 훼손 가속화, 보전대책 서둘러야

사람들이 지나치게 몰리다보면 사람이 탈나게 마련입니다.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제주도내 오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도내의 탐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일부 오름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어 큰 일입니다. 오름의 원형이 완전히 잃을 정도로 몸살을 앓고 있어 그렇습니다. 급기야 제주오름을 대표하는 새별오름과 웅눈이오름에 대한 휴식년제를 검토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주도는 탐방객의 답압으로 인한 새별오름의 훼손을 막기 위해 연내 휴식년제 시행(탐방 금지) 여부에 대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들불축제 장소로 널리 알려진 새별오름은 탁 트인 경관과 함께 최근 오름 능선의 역새꽃이 만개하면서 가을철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웅눈이오름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탐방객이 많이 찾으면서 훼손이 가속화되자 휴식년제 시행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오름

정상부는 물론 농선마저 군데군데 송이층 바닥이 드러나고 일부 유실됐습니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선의 미학'을 보여주는 제주의 대표적인 오름이었습니다. 그런 웅눈이오름이 식생까지 파괴되는 안타까운 지경에 처했습니다. 이처럼 환경은 훼손되면 쉬워도 보전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단적으로 물찾오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물찾오름이 자연휴식년제를 시행한지 12년이 됐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다.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복원될지 알 수 없습니다. 환경은 한번 훼손되거나 파괴되면 되살리는데 그만큼 힘들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접근성이 좋은 오름들은 탐방객으로 인해 갈수록 망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제주의 소중한 자원인 오름을 지키기 위해서는 장단기 보전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새별오름이나 웅눈이오름 같은 훼손 사례는 계속 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부 고

송명수(애월읍 금성리) 어머니 전주 이씨 영광(향년 93세)께서 서기 2020년 11월 2일 04시 23분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20년 11월 3일(화요일)  
▶ 발인일시: 2020년 11월 4일(수요일) 오전 5시  
▶ 발인장소: 하귀농협 장례식장 201호 분향실  
▶ 장 지: 양지공원

아 들 송명수  
며느리 박정심  
손 자 송승훈  
동 훈  
창 훈

※ 연락처 : 송명수 010-4626-0569  
박정심 010-2681-8911  
송승훈 010-2681-1405  
송동훈 010-2778-0329  
송창훈 010-2625-8911

### 단체반수시모집

즐거움 삶과 다이어트를 위하여 탐라댄스교실에서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사교댄스: 지루박, 부르스, 트로트, 탱고, 민요  
시간: 평일~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댄스스포츠 단체반: 자이브, 룸바, 왈츠  
시간: 토요일 오후 5시 ~ 오후 6시  
시간: 화요일 오후 7시 ~ 오후 8시

자격: 개인, 부부, 직장인 단체  
나이 관계없이 걸을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 지도

탐라댄스스쿨  
중앙터미널 2층 ☎753-5308

### 농지. 전. 필수농업 고민

한번 식재로 수년간 수확  
퇴직후 심신마음 작물과 소통

제주먹고사리뿌리와 등글레뿌리  
퇴밭 전.밭.식재 관리 수확안내  
15kg 1박스 [15평~20평식재]  
1박스당 택배비포함 58,500원  
심는방법.관리와 수확 상세 안내

상담전화 010-2691-9316 064783-8987  
농협계좌 901055-52-018318  
제주약령리물품출판구센터 한기림농장 대표 이기숙

###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 빙의·신들림 증세로 고생하시는분 상담환영

◆ 전화·대면상담 무료  
◆ 빙의천도 최고전문가

영가천도, 빙의치유 전문상담원  
제주불교금강선원  
제주시 삼무로 47 3층(연동)  
064)746-0789

###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한라일보가 **大勢** 세 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2020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부터 15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3대1'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19년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한국ABC협회 / 2019년 발표

광고 750-2830 · 구독 750-2330 · 서귀포 732-5552